

# “선생님이 교실서 선교행위”

## 찬송가 부르게 하고 예배참석 강요 교회 가지 않는 학생에게 청소시켜

### 포천 송우초등학교 2학년李明 담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회출석을 강요하는 등 교단을 선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포천 송우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이모교사가 담담학년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회출석을 강요하고, 이를 확인키 위해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등 교단에서 노골적으로 특정종교 선교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94년도 학생들에게 교회출석을 강요했으며, 교회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체벌까지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교사의 거듭된 교회출석 강요로 한 불자어린이는 원형

탈모와 무기력증세를 나타내 지난해 10월 의정부 성모병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담당사에 따르면 “종합진단을 해봤으나 신체적인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교회에 나가라는 선생님의 강요와 친구들과의 적응문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모교사는 그후에도 수업시간 전후에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쳤으며, 심지어 집에 가서 보라고 찬송가를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해 개신교인 양 강요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이모교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

라며 영등한 답변을 했다.

이같이 교회출석을 계속 강요하자 학부모들이 교장에게 “교단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두차

### 광명의원·중앙승가대학 결연

#### 6개 도시서 무료진료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운영하고 있는 광명의원(이승우 이사장)이 중앙승가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기로 합의해 학인스님이 앞으로 광명의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승가대학 자매결연을 통해 무료진료 혜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광명의원(이승우 이사장)은 승가대학에서 배출한 전교생 명단을 바탕으로 광명회원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승가대 스님들은 서울, 청주, 군포 등 연꽃마을이, 할머니 할아버지 노래자랑 등 무료로 받을

래에 걸쳐 항의했으나 신묘교장은 곧 다른 학교로 전근갈 사람이나 교육청에 투서해도 필요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묘교장은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담담교사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의 종교를 피력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며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갔으며, 다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모교사는 지

난 3월부터 의정부 사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국대 교육학과 박선영교수는 “특정종교와 계층 종파에 치우치는 교육을 해서는 안되는 공교육현장에서 교회출석을 강요하고 확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교행위이며, 특정종교를 공공연히 강요하는 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단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밝히고 현재 포천군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천=정성운 기자)

### 건강의원 만수재 개최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불자노인들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한마음 만수재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해도) 주최로 지난 20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부산거주 7백여 불자노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의 찬불가를 시작으로 부채춤, 사물놀이, 할머니 할아버지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설 만해불교대학(학장 석주)이 지난 21일 개원했다. 1년과정이지만 만해대학은 불교혁신과 대중화를 위한 청년지도자 양성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만해대학은 1학기에 불교학개론, 경전강독(반야심경), 불교사상론(만해사상과 정신)을 강의하며 2학기에는 불교교리발달사, 현대사회와 불교, 청년지도자론, 경전강독 등을 교육한다. 한편 만해대학 졸업자에게는 조계종 포교사 응시자격,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1·2·3급) 응시자격 우선부여, 각종 장학금 지원 등 특전이 부여된다.

(포천=정성운 기자)

## 대전 대학생불교교육원 개원 정법체계 교육... 지역불교·포교활성 교수도

대학생 포교를 위한 전문교육 시설이 중부권내 최초로 개설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전지부 등문회가 설립한 대전대학생 불교교육원(원장 박형권)은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30일 과정동 생활불교관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학생포교에 나선다.

최근 전국 각 대학내 불교단체가 신입회원의 급격한 감소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포교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교육원이 개원한다는 점에서 지역불교와 대학생포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전대학생 불교교육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3

시간동안 불교교리의 이해를 위한 불교영어(한태호 대전실대교수), 불교학개론 및 사상(장휘옥 동국대교수), 경전강독(김덕수 박형권법사) 등을 교육하게 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또 방학기간을 이용, 단기출가를 실시하며 3년 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실시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 ‘큰지혜 나눔터’ 강좌 서울대불련, 신입생 대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 서울지부가 오는 28일부터 6월7일까지 신입생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큰지혜 나눔터’라는 주제로 개설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개최된다.

### ‘청교도적...’ 발언 관련 宋총장 인사조치 요청 종립학교관리위, 동국학원에

종립 동국대 송석구총장이 방송을 통해 ‘청교도적...’이란 표현을 해 물의를 빚고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설조)는 지난 20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송석구총장(동국대)의 인사조치를 동국학원 이사회에 공식요청키로 결의했다. 송총장은 지난해 11월 21일 SBS 8시 뉴스에서 ‘정경유착 진단과 처방’으로 ‘청교도적인 명예혁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경유착을 끊을 수 없다’고 발언, 불자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것.

한편 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석중인 동국학원 감사에 정유(불교신문 사장) 법일(종회의원)스님을 복수추천하고 승가대 감사에 정년(수석사서) 정수(용문사주지) 지홍(낙산사주지) 원우(재무부장) 혜담(신우도량삼담대표) 일연(동학사주지)스님을 복수추천했다.

관리위원회는 또한 동국대 송석구 교수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 종립학교위상을 위해 차후 교수자질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이사회에 정식 요청키로 했다.

## “스님·불서 꼭 필요합니다”

### 러 크라스노다르 한인회 본사에 서신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한인 지역에서 사활을 운영할 한국인 스님과 한글 불교서적을 기다리고 있다.

크라스노다르 종합대학 학장이자 한인회 회장인 김영수는 “이 지역 한인들은 불교 신성을 원하고 있으나 사찰과 지도해 줄 스님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불서라도 있으면 읽고 불교에 귀의할 텐데 그마저 형편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본사

로 보내왔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은 2만여명의 한인교도가 살고 있으며 현재 개신교 선교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

이 지역 한인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제사의식을 불교적 의례로 정제화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불교이외의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 “안성이전 불가김포학사 교수”

### 승가대운영협의회

중앙승가대학 운영협의회는 지난 15일 학사이전과 관련 회의를 열고 김포 이전본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수 교직원 학생대표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는 김포이전 본사를 성취하는 것이 정규대 승격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학교 당국

과 이사회에 정규대 승격과 학사이전 불사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수협의회·학생회, 동창회도 김포 이전본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교수회와 학생회는 또 학교 당국과 이사회에 대해 학교발전 위한 제반계획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구독신청: 737-0693

# 종교편향 시정촉구 연일 규탄

## 대구·마산·부산 범불교도 정법수호 결의대회... 사례집도 배포

지난 1일 김영삼대통령의 국군 중앙교회 예배건을 계기로 표면화된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가 대구·마산·부산에서 연일 계속됐다.

지난 17일 대구를 시작으로 확산된 범불교도 정법수호 결의대회에서 불교인들은 현정부의 종교편향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현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했다.

무공(동화사주지) 법조(고운사주지) 설조(불국사주지) 등 대구 경북 5개 본말사 주지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 정법수호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93년 2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48건의 종교편향 사례집을 배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일련의 종교편향 사태에 따른

불교도의 자세를 견지했다.

규탄법회에 이어 스님들은 모 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앞으로 각 사찰단위의 규탄법회 개최, 현수막 설치 등 조직적인 규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마산참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도 19일 마산 정법사에서 마·창 범불교도 정법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특정종교의 우위나 정도 및 교육을 명문화하여 정치의 한 부분으로 삼는 일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부산불교도 결의대회에서는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 일련의 불교 경시정책에 대한 부산 불교도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대회는 또 경주고속전

철 도심통과와 범어사 안 고속전철 지상화 백지화 등 각종 불교관련 불합리한 법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신한당당은 불교표를 잡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당당은 19일 강선영 불교대책위원장을 급히 조계종 총무원에 보내는 한편, 서석재 선대위 부위원장을 통해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현 정부나 당이 불교계에 차별 대우 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파문전화에 나서고 있다.

## 정부 불교정책 엄중 경고

### 종교편향 비대위 30일 조계사 규탄대회

김영삼대통령의 편향적 종교정책 규탄법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1일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편향정책이 시정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준비위는 정치적 목적과 필요에 의해 ‘달변 삼키고 쓰면 뱉는’ 정부의 대불교정책을 경

고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언술에 호도됨없이 ‘지혜’와 ‘인목’을 가지고 향후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오는 30일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의 편향적 종교정책 규탄법회’를 개최한다.

**마음** ‘나’라는 실제 없다

사슴의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 있지않 지혜의 눈으로 보면 ‘나는 공한 것, 나라는 실체는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자음연전)

**협찬** 한마음선원 범형제회

모이자! 조계사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 김영삼 정권의 편향적 종교정책 규탄법회

- 김영삼 정권 출범 3년
- 17사단 법당폐쇄 및 훼손사건
- 3·29 법난
- 조계사 공권력 투입
- 국방부 교회 예배사건
- 특정 종교만을 위한 교육 개혁안
- 부활절을 피하기 위한 국가시험 시간변경 등등...
- 총선이후 집권 후반기기를 맞이하여
- 김영삼 정권의 노골적인 편향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국민의 권리!  
되찾는 길이 있습니다.  
편향적 종교정책을  
비판하며 불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인스님들과 재가청년불자들이  
중심으로 불자들의 동참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 내 종교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종교도 소중함을 일깨워 줍시다 ”